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 (창 6:1-12)

1. 죄로 망가진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동기와 근거가 무엇입니까?(1-2절)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5-6절)

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 (1) 죄로 어두워진 시대에 사람들의 행동 동기는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자신의 감각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죄가 반복될수록, 영적·도덕적 분별력은 사라지고 육신의 욕망과 감각적인 욕망 추구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생은 흠덩어리, 욕망과 감각 덩어리일 뿐입니다.
- (2)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며 근심하시고 고통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세상을 보시며 근심하시고 고통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십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은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합니다.

나는

요즘 내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이 문제일까요?

2. 죄로 망가진 세상에 대해 근심하고 고통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십니까?(7절)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8절, 5:1-31 참조)

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 (1) 하나님은 대홍돈 속에서 세상을 ‘Restart(재시작)’하기로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것은 세상을 ‘Reset(초기화)’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시면, 세상은 질서와 생명을 상실하고 다시 혼돈과 어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혼돈과 공허에서 세상을 다시 ‘Restart’하기로 계획하십니다.
- (2)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 근심하시고 고통하시는 중에도,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는 그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세상을 출범시키는 주역이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는 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 (3) 노아는 윗세대의 영적 자산을 이어받았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비밀은, 수평적인 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을 능가하는 수직적 관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노아는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부모님의 기도라는 영적 자산의 힘으로 주변 문화의 압력을 이겨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윗세대와, 신앙의 공동체와, 부모님의 신앙과 견고하게 연결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내가 윗세대로부터 받은 은혜와 영적인 자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청년들, 다음세대에게는 어떤 영적 자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3. 노아 시대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였습니까?(11-12절)

노아 시대는 우리 시대와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11.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 (1) 노아 시대에 온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땅이 부패했다는 것은 ‘땅이 죄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땅이 부패하게 된 원인은 사람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과 땅은 항상 한 세트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땅이 부패하고, 사람이 의로우면 땅이 생명과 풍요를 냅니다.
- (2) 노아 시대에 온 땅에는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포악함이 가득했다는 것은 ‘폭력과 무법이 조직적으로 행해져서, 사회 전체에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힘있는 자들이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는 ‘도둑질’이 사회에 만연한 것입니다.
- (3) 오늘 우리 시대도 노아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기도 더 가지기 위한 경쟁과 다툼이 만연합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함과 인간다움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면, 모두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가지기에 급급한 대혼돈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나는

모두가 더 가지기 위한 경쟁과 다툼에 몰두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4. 노아가 당대의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무엇이며(9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10절)

이것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 (1) 노아는 어두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사람들처럼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 (2) 왜냐하면, 노아는 가족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1) 먼저, 노아는 하나님이 윗세대로부터 내려주신 은혜에 스스로의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2) 또한, 노아는 가족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듯이, 노아의 가족들도 아버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의 가정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어가는 최소한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 (3) 우리 청년들도 혼돈의 시대를 함께 걸어갈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혼자서 혼돈의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 길을 걷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면 힘들고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 (4) 우리 청년들도 윗세대의 신앙과 공동체의 기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혼자만의 결심과 의지로는 결코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윗세대의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에 견고하게 연결된 청년들이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압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 한줄기 빛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